

그리운 엄마·아빠에게

온누리안 '몽트엉'씨가 고향에 보내는 편지

(베트남)



15일 나주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베트남 출신의 '온누리안' 응웬티 몽트엉(23)씨가 남편 윤재한(38)씨와 함께 이를 전 태어난 딸(은혜)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서 맞은 첫 뗏(설)에 딸 낳았어요”

엄마·아빠, 그리고 언니·오빠들 모두 안녕하세요.
“뗏(베트남의 설)” 준비는 다 마쳤어요. 올해 뗏에는 집에 가지 못했네요.
엄마·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 언니·오빠들도 올해는 내가 없어서 많이 허전하 시겠네요.
엄마·아빠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한국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내년 뗏에는 베트남에 가겠습니다.
저는 방금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너무 예뻐요. 많이 아팠지만 아기를 볼 생각으로 참았답니다. 아기를 낳아보니 새삼 엄마의 사랑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저는 여기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도움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생활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에는 한국음식도 잘 먹고 적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설날 즐겁게 보내세요.
첫째 언니, 건강은 어떠세요. 보고 싶네요. 설날마다 언니가 제게 세뱃돈을 줬었지요. 저는 걱정하지 말고 설날 잘 보내세요.
둘째 언니, 제가 공부할 때 고생을 많이 했지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결혼을 하는 바람에 보탬을 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하답니다. 이제 나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언니만 걱정하세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요.
오빠들도 잘 지내요.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빌게요. 열심히 노력해서 더욱 잘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들 모두 저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내가 먼 곳에서 시집을 오는 바람에 엄마·아빠를 잘 모시지 못한 것 같아요. 언니나 오빠들이 제 대신 잘 대해주시길 것으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복도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도 편지할게요. 먼 곳에서 딸이.
Nguyễn Cao Xuân
Nguyễn Thị Minh Hằng

“내년 뗏엔 아기와 함께 고향 갈게요”

지난해 나주에 시집온 베트남여성 응웬티 몽트엉(23·나주시 금천면)씨가 설을 맞은 13일 건강한 딸을 낳은 뒤 고향의 부모 형제에게 그리움과 가족사랑이 넘치는 편지를 보냈다.
출산 이틀뒤라 아직 몸가누기가 힘든데도 몽트엉씨의 편지는 곁에서 간호하는 남편 윤재한(38)씨의 다이어리를 가득 메웠다.
이번 설은 몽트엉씨에게 있어서 여러가지 의미를 지닌다. 낯선 한국에서 1년여를 보내는 사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랑을 한 몸 받게 된 데다 설을 눈앞에 두고 예쁜 딸까지 낳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몽트엉씨의 가슴 한 구석은 여전히 허전하다. 난생 처음으로 설 명절을 고향의 부모·형제들과 함께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편지를 쓰는 도중에도 연신 눈물을 쏟아내려야 했다.
베트남의 설인 ‘뗏’은 중국인들의 춘절 열기를 능가하는 가장 큰 명절. 몽트엉씨는 어린시절 고향의 호치민시 인근 고향 농촌마을에서 보낸 ‘뗏’의 추억을 떠올리며 7남매 중 막내로서 자라던 어린시절을 회상했다.
하지만 몽트엉씨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본다. 고향에 두고온 가족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 자상한 시어머니와 든든한 남편이 항상 자신의 곁에서 버팀목이 돼줄 것이라 생각만 하면 질로 힘이 솟는다.
“내년 설에는 아기를 데리고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라는 몽트엉씨의 환한 미소에는 타향에서 설을 맞은 모든 ‘온누리안’들의 간절한 향수가 묻어있었다. /최경호기자 choice@

3천만 민족대이동 시작됐다

설 연휴 짧아 교통혼잡 극심할 듯

민족 최대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대이동이 시작됐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의 지역간 이동 인원은 3천405만 명. 1일 평균 681만명(16일부터 20일까지 5일 평균)으로 지난해 설에 비해 5.7%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올 설 연휴는 유난히 짧아 고속도로를 이용한 귀성·귀경길이 여는 해보다 힘들 전망이다. 특히 설 바로 전날인 17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승용차를 이용한 귀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관련기사 8면)
15일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설 명절 연휴 기간(17~19일) 동안

관주, 전남북 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 평균 46만1천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 증가한 것이며 평일보다는 51%, 주말보다는 27% 많은 것이다.
도로공사는 연휴가 짧아 귀성차량과 귀경차량이 일시에 집중돼 극심한 혼잡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귀성차량은 설 전날인 17일과 설날(18일)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귀경차량은 설날인 18일 오후와 19일에 몰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6일 오후~17일 오전 혼잡 예상 구간은 ▲광주개방식 구간 ▲광주를

게이트 인근 ▲전주 IC 인근 등이며, 18일~19일 오후에는 전주 IC에서 익산 IC구간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그러나 동광주영업소 및 광주~동광주 간 광주시내 통과 구간은 지난해 말 장성~담양간 우회노선이 개통됨에 따라 혼잡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을 사흘 앞둔 15일 광주 고속버스터미널과 광주역 등 주요 버스 터미널과 역, 여객터미널 등에는 선물꾸러미를 손에 든 가족 단위 귀성객이 간간이 눈에 띄었다. 또 광주·전남 지역 일부 국도 주변과 공동묘지 인근 도로에는 일찍 성묘를 마치려는 성묘객들이 몰고 온 차량으로 간헐적인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장관급회담 27일부터 평양서

남북, 어제 실무접촉

남북이 오는 27일 평양에서 장관급 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남북관계 복원에 나선다. 남북은 15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제20차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제20차 장관급회담을 오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3박 4일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5면)
남북은 이날 공동보도문에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쌍방의 의지를 확인한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해 7월 11~13일 열린 제19차 장관급회담 이후 7개월 동안 중단됐던 남북관계가 6자회담의 ‘2·13’ 합의에 이어 이번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의제로는 대북 쌀 차관 및 비료 지원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 방안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 열차시원 운행 및 경공업, 지하자원 협력방안, 군사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측에서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를 맡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며 북측에서는 종전대로 권호웅 내각책임참사가 단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실무접촉 대표인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날 오전 전례회의를 마친 뒤 “남북이 조속히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분위기가) 진지하고 매우 좋았다”고 밝혔다.
북측은 “주변 정세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남과 북이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며 “남북관계 정상화의 첫 조치로 제20차 장관급회담을 재개하자”고 말했다고 이 본부장은 전했다.
/개성 공동취재단

■ 설 연휴 광주·전남 날씨 (자료:기상청)

16(금)	17(토)	18(일)	19(월)
맑은후 흐려짐 -3 / 10℃	흐리고 비 2 / 8℃	흐린후 맑음 4 / 9℃	구름조금 0 / 11℃

즐거운 설연휴 맞으십시오
17·18·19일 신문 쉽니다
설특집 13~19면, TV가이드 21~24면 발행
뉴스 서비스는 kwangju.co.kr서 계속

교원인사 28면...명단은 인터넷 광주일보에

우리 가족 활력에너지

베콤씨

아침·저녁 하루 두번 **우리가족의 힘- 베콤씨**
베콤씨에 함유된 베타인과 비타민D는 수중성비타민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www.kwangju.co.kr